

Market Index / 2일	코스피지수 ▲ 1969.19 +1.40		코스닥지수 ▲ 619.81 +9.26		유가(WTI, 달러) ▼ 55.10 -1.61		환율(원)		1USD 100¥	살때 1233.21 팔때 1161.04	1190.79 1121.12	1EUR 1CNY	살때 1357.26 팔때 177.38	1304.30 160.50

올해 중기 추석 자금난 10년래 ‘최악’

자금 곤란 비중 60%… 작년 대비 23%p 증가
대다수 기업 “판매 부진·인건비 상승이 원인”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60%까지 치솟으며 근 10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달 9일부터 그달 19일까지 도내 4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추석자금 수요 조사에서 전체기업의 60%가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반면 자금사정이 원활하다고 응답하는 곳은 전체의 5%에 그쳤고, 나머지 35%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올해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0년 34.7%에서 ▷2011년 42.8% ▷2012년 30.4% ▷2013년 31.3% ▷2014년 32.4% ▷2015년 36.5% ▷2016년 24.3% ▷2017년 48.9% ▷2018년 37.0% ▷2019년 60%로, 올해가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추석 때와 비교하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비중은 23.0%포인트 증가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다수 기업들이 ‘판매 부진’(58.3%)과 ‘인건비 상승’(50.0%)을 들었다. 특히 ‘인건비 상승’은 올해 초 진행된 설자금 수요 조사에서도 자금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와 매출 부진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금난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당수 도내 중소기업들은 자금 차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은행을 통한 자금 차입이 곤란하다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35%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은행 차입이 곤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은행이 신규대출을 기피해서’라는 답변이 3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재무제표 위주의 대출’(35.3%) ‘부동산 담보 요구’(32.4%) 등의 순이었다.

이충목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은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추석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와랑와랑 in 서귀포’ 행사가 열렸다.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와랑와랑 in 서귀포’ 성황리 폐막

총 4차례… 2만5000여명 방문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8월 23일부터 지난 1일 사이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한 ‘와랑와랑 in 서귀포’ 행사에 2만 5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국카스텐과 에일리, 십센치, 데이브레이크, 김나영, 나플라·루피, 스킵&하하 등 국내 인기 뮤지션들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쳤다.

또 행사 기간 주변에서는 플리마켓과 다양한 먹거리 장터가 열렸으며 서귀포 관광지 입장권이나 서귀포 내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지참하는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한 도민은 “앞으로도 다양한 대규모 행사가 자주 열려 서귀포시가 북적거리고, 축제 분위기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방문객들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주택매매가격 하락세 가파르다

7~8월 지수 연이은 -0.3%대
단독주택도 3개월째 내리막

제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지난 7월부터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급상승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0.05% 하락한 반면 제주는 -0.34%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7월 0.30% 하락한데 이어 또 큰 폭으로 떨어지며 하락폭을 키웠다.

이는 지난 2~5월 0.01~0.04%의 하락률에 이어 6월 -0.15%를 보인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강원(-0.43%) 경남(-0.40%) 충북(-0.35%)에 이

어 하락폭이 네 번째로 컸다. 누계 실적은 -0.94%로 작년 동기의 0.36%에 견줘 1.3%p 차이다.

8월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42%(전국평균 -0.14%)다. 연립주택은 -0.44%, 단독주택은 -0.23%(전국평균 0.22%)를 기록했다. 도내 단독주택마저 지난 6월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줄곧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8월 도내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32%를 보였다.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과 같은 성향을 보이며 7월 이후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평균주택가격은 3억1130만7000원(전국평균 3억524만8000원)이며 단위면적당(㎡) 가격은 255만4000원이다. 전세가격은 1억8426만1000원(전국평균 1억8735만4000원)이며, 월세가격은 73만7000원(전국평균 63만8000원)이다. 백금탁기자

“감귤 추석 늦을수록 구매성향 강하다”

농촌진흥청 최근 9년간 추석 농산물 구매패턴 분석
이른 추석엔 멜론·복숭아·포도 선호… 품질에 좌우

제주가 주산지인 감귤의 경우, 늦은 추석일수록 감과 함께 구매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처럼 이른 추석에는 복숭아·포도의 구매가 늘고 사과·배는 소비 급증 이후 정체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2010년부터 작년까 지 9년간의 소비자 농식품 구매자료와 올해 8월중 소비자패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이른 추석은 9월 3주 이전으로 2011년, 2014년, 2016년이 해당된다. 늦은 추석은 9월 4주에서 10월 1주 사이며 해당연도는 2012년, 2015년, 2017년, 2018년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간 연도인 2010년과 2013년은 제외됐다.



이른 추석에는 멜론·복숭아·포도 구입액이 증가했다. 평소 대비 추석 전 가구당 구입액이 멜론은 97%, 복숭아는 174%, 포도는 142%가 각각 늘었다. 그러나 사과·배는 추석 이전

칼호텔 ‘추석애(愛) 패키지’ 호텔 객실 1곳당 평균 수입 7만7989원

제주 칼호텔과 서귀포 칼호텔은 9월 추석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추석애(愛) 패키지’를 출시한다.

‘추석애 패키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9월 8~18일 이용 가능한 상품으로, 스탠다드 객실과 함께 웰컴 추석 메뉴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제주 칼호텔은 이 기간 대보름 빵 2개와 망고 주스 2잔을 제공한다. 서귀포 칼호텔에서는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을 넣은 견과류 케이크와 망고주스를 준다.

도내 호텔 84곳 조사결과
작년 평균 이용률 61.94%

지난해 제주지역 호텔들은 객실 1곳당 평균 7만7000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호텔업협회가 도내 84곳 호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호텔업운영현황’에 따르면 작년 도내 호텔들은 객실 1곳당 평균 7만 7989원의 수입을 거뒀다.

객실당 평균 수입은 호텔이 투숙객에게 판매한 객실의 평균 요금에서 객실 이용률을 곱한 것으로, 객실 여러개를 운영하는 호텔업체 특성상 객실 판매 단가보다는 이용률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지표가 호텔 경영 상황을 가늠할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도내 호텔의 객실 평균 이용률은 61.94%, 객실당 평균 이용 요금은 12만5910원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광호텔 중

특1급 호텔의 이용률이 66.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특2급(64.25%), 1급(63.14%), 2급(52.32%), 미등급(59.66%) 순이었다. 등급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았다.

관광호텔이 아닌 가족호텔 또는 호스텔로 분류되는 숙박업체의 이용률은 50%를 밑돌았다.

가족호텔은 이용률 48.58%에, 객실 1곳당 평균 3만6795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호스텔은 상황이 더 심각해 이용률이 25.17%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이용률에 객실당 수입은 1만4853원에 그쳤다. 이상민기자

등록번호 :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원희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010-8660-1263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 문 복

동 부 공 인 중 개 사

☎ 010-2800-4595
064-747-5115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

• 해안동마을 맹지 대674㎡/매가50㎡ 5억
• 해안동 생관임야(목장) 맹지28,842㎡ 6억
• 상명리 조림식주택60㎡/대430㎡ 1.5억
• 수산동 저수지인근 카페음료점24㎡ 3억
• 판포 바다경관 구 자연녹지 3028㎡ 6.4억원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 아라동기차촌내 1090㎡ 9.24억
•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 고성외고인근2차선점 대지조성 481㎡ 6.5억원
• 유수암 2차선 변 주택착공 토지 519㎡ 2.5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억

• 선출검은오름 북측 주택용지 1002㎡ 2.2억
• 신촌 2중주거지역 대 157㎡ 1.7억
• 우도하교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억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83㎡ 6.5억
• 오라정실 마을내 587㎡ 7.65억원

벌초기계판매

◆종 류 : 견착식, 배부식, 조립식

남성로타리 ↑
신제주 ←

종합경기장 정문 앞
●한승진신경외과

CU●

터미널

주경기장 정문 ↓

한성기계

제주시역 ☎ 753-6653
FAX 753-6654

예초기/Brush Cutter

잔디깎이/Lawn Mower

체인톱/Chain Saw

전정기/Hedge Trimer

송풍기(낙엽청소)/Blower